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

김 태 민 _ 봄내호스피스 실무국장, 강원지부장

얼마 전, 한 TV에서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의 생존자들을 다룬 프로그램이 몇 번에 걸쳐 방영되었다. 그 제목이 “生存”이라고 했던가. 사고의 생존자들은 하나 같이 극심한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를 앓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또 어떤 사람은 대인공포증을, 어떤 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살을 하고, 다른 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 정신적 치료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관계당국은 “보상을 해 주었으니...” 더 이상 이들을 돌봐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9.11테러사건이 발생했을 때, 뉴욕시는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에 뉴욕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뉴욕시민은 누구나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신과 의사들을 병원에 24시간 대기하도록 했다. 그렇게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완치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어린이들, 특히 학대나 성폭력, 기타 사고에 노출되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완치되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한다.

돈이 많은 나라여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결국 삶의 질도 돈의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 받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건 돈의 문제 이전에, 인간에 대한 예의, 배려의 문제이다.

98년도에 일어난 “씨랜드” 화재사건을 알 것이다. 그 사건 때문에 아들을 잃은 전 국가대표 선수는 나라를 등지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 그녀가 나라를

떠난 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화재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서로 쉬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회에 대한 분노였다. 최소한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은 거짓된 사회에 대한 말없는 항거였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느냐의 문제이다. 호스피스는 의료적인 행위와 함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는 행위이다.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굳이 호스피스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종사자들의 노력에 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젠 “제도화”라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병, 의원들이 수익의 원칙에 따라 이 호스피스를 병원운영의 한 형태로 수용하려 준비하고 있단다. 그렇다면, 결국 호스피스도 경쟁시대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다. 경제원리에 의한 호스피스케어와, 소명감과 인간애에 의한 케어... 아마도 얼마간의 혼란기를 거치겠지만, 결국은 소명감과 애정으로 “마음을 만져주는” 곳이 환우들에 의해 선택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해 봤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환우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곧 환우들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경쟁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젠 환우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경쟁시대에서 좋은 호스피스기관이란, 다른 여러 호스피스기관이 있음에도, 한 번 들어와 본 환우에 의해 다시 선택되어지는 곳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퇴원한 환우가 다시 오고 싶어 애타하는 곳, 그런 곳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